

화학산업, “3Q 경기도 걱정된다”

대한상의, 전산업 BSI 89 전망 ... 5월 반짝 회복에서 다시 하락세로

3/4분기에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가 계속 위축될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경기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전국 1485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3년 3/4분기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89로 2002년 4/4분기 111을 기록한 이후 3분기 연속 기준치 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2/4분기 97로 상승세를 보이며 기준치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하락세로 반전된 셈이다.

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 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해당 분기 경기가 전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 미만이면 반대를 의미한다.

2003년 2/4분기 BSI 실적치는 79로 전분기(75)에 비해 다소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인 100 미만에 머물러 기업들의 경영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업종의 BSI는 2/4분기보다 1p 높아진 85로, 고무·플라스틱업종은 전분기보다 하락한 94로 전망됐다. 또 전자·반도체(110), 컴퓨터·사무기기(109), 조립금속(103)은 고부가가치제품 개발과 중국·동남아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지만, 조선(80), 기계(84), 섬유(87), 철강(87), 자동차(88) 등 대부분의 업종은 국내 소비 둔화와 환율 불안, 세계경제 회복 지연, 그리고 SARS 여파 등으로 인한 수출여건 악화로 경기가 전분기에 비해 위축될 것으로 조사됐다.

설비투자는 대기업(108)은 호전될 것으로, 중소기업(100)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고용은 대기업(100)이 전분기 수준으로, 중소기업(98)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산업의 수출은 전분기와 비슷하지만 내수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에 따라 생산량(98)과 설비가동률(97)도 다소 부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기 부진의 원인으로 미국-이라크 전쟁의 조기 종결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가계 부채, 노사관계 등의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3/4분기에도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이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앞으로 경기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 해소에 주력하고 >각종 규제 완화와 더불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BSI 지수 전망 비교

구 분	2/4분기 BSI	3/4분기 BSI
전자/반도체	117	110
컴퓨터/사무기기	111	109
고무/플라스틱	99	94
자동차	100	88
철 강	98	87
섬 유	85	87
석유화학	84	85
기 계	89	84
정 유	80	80
펄프/종이	80	73

<Chemical Journal 2003/06/09>